



「2021년 국가직 9급 공무원 시험」 국어 기출문제 및 해설(5)

| 이유진 교수 | 박문각남부고시학원

15. (가)~(라)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가) 반중(盤中) 조홍(早紅)감이 고아도 보이나다
유자 안이라도 품엄죽도 허다마는
품어가 반기리 업슬새 글노 설위 허노이다
- (나) 동짓달 기나긴 밤을 한 허리를 베풀어 내어
춘풍 니불 아래 서리서리 너헛다가
어른 님 오신 날 밤이여든 구뵈구뵈 퍼리라
- (다) 말 업슨 청산(靑山)이오 태(態) 업슨 유수(流水)로다
갑 업슨 청풍(淸風)이오 님즈 업슨 명월(明月)이로다
이 중에 병 업슨 이 품이 분별 업시 늘그리라
- (라) 농암(籠巖)에 올라보니 노안(老眼)이 유명(猶明)이로다
인사(人事)이 변흔들 산천이썬 가셀가
암전(巖前)에 모수 모구(某水 某丘)이 어제 본 듯 허예라

- ① (가)는 고사의 인용을 통해 돌아가신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하고 있다.
- ② (나)는 의태적 심상을 통해 임에 대한 기다림을 표현하고 있다.
- ③ (다)는 대구와 반복을 통해 자연에 귀의하려는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
- ④ (라)는 자연과의 대조를 통해 허약해진 노년의 무력함을 표현하고 있다.

☆ 정답: ④ - 독해(문학) - 고전 운문 내용과 형식 이해

☆ 정답 해설:

(라)는 '인사(人事)이 변흔들 산천이썬 가셀가(사람의 일이 변한들 산천이야 변할쏘냐)'를 통해 자연과의 대조는 드러내고 있으나, 허약해진 노년의 무력함을 표현한 작품이 아니다. 이 작품은 농암에 올라 자연과 어울리는 기쁨을 노래한 작품이다.

☆ 오답 해설:

① (가)는 고사 인용(회골 고사)을 통해 '품어 가도 반가워해 주실 분(부모님)이 없는' 상황에 대한 슬픔과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하고 있다.

참고) 회골 고사(懷橋故事)

중국 삼국 시대 오나라에 육적이라는 자가 있었다. 여섯 살 때, 원술이라는 사람을 찾아갔다가 그가 내놓은 굴 중에서 세 개를 몰래 품속에 넣었다가 하직 인사를 할 때 그 굴이 굴러 나와 발각이 되었다. 그때 원술이 사연을 물으니, 육적은 집에 가지고 가서 어머니께 드리려 하겠다고 하므로, 모두 그의 효심에 감격하였다고 한다. 이 일을 '회골 고사' 또는 '육적회골'이라고 하며 '부모에 대한 효성의 뜻'으로 쓰인다.

- ② (나)는 임을 기다리는 기나긴 밤의 한 허리를 베풀어 넘어 오신 날에 다시 퍼졌다는 의태적 심상(서리서리, 구뵈구뵈)을 통해 임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하고 있다.
- ③ (다)는 초장과 중장에서 '~이오 ~로다'의 구조를 반복하는 대구를 사용하고, '업슨' (없는)을 반복하며 자연 속에서의 삶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자연에 귀의하려는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

☆ (가) 작품 해설: 박인로, <반중 조홍감이>

- 해제: 한음(漢陰) 이덕형으로부터 감을 대접 받고 느낀 바 있어 지었다는 이 작품은 '조홍시가(早紅柿歌)'라고 널리 알려져 있는, 연시조 4수 중 한 수로 효(孝)를 주제로 한 작품이다. 귀한 음식을 대했을 때 그것을 부모님께 갖다드렸으면 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돌아가신 부모님을 생각하고 그것을 갖다드리지 못함을 서러워한다는 것은, 평소 효심이 두텁지 않고는 어려운 일일 것이다. 노계(盧溪)가 감을 보고 돌아가신 부모님을 생각하고 서러워하는 것은 그의 충효로 일관된 진실한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심정을, 굴을 품어 가려 했던 옛 중국 사람의 고사 '육적 회골(陸績懷橋)'과 비교한 것에서도 유학자다운 취향이 느껴진다.
- 주제: 부모를 그리워하는 마음

☆ (나) 작품 해설: 황진이, <동짓달 기나긴 밤을>

- 해제: 이 작품의 화자는 임과 헤어진 상황에서 임을 그리워하며 간절하게 재회를 바라고 있다. 우리말의 묘미를 살린 음성 상징어, 추상적 개념의 구체화 등의 기법을 통해 임에 대한 애뜻한 기다림을 호소력 있게 표현하고 있어 조선 전기 시조 중 연정가(戀情歌)의 대표작으로 일컬어지고 있다. 특히 임이 부재하는 동짓달 밤이라는 부정적 시간을 단축하여 긍정적 시간인 임이 오는 날 밤을 연장하겠다는 참신한 발상이 돋보인다.
- 주제: 임에 대한 그리움과 애뜻한 기다림
- 구성:
 - 초장: 동짓달 기나긴 밤의 한가운데를 베풀어 냄.
 - 중장: 베풀어 낸 시간을 춘풍 이불 아래 넣어 둠.
 - 종장: 임이 돌아오는 날, 베풀어 둔 시간을 펼치고 싶음.

☆ (다) 작품 해설: 성혼, <말 업슨 청산이오>

- 해제: 조선 중기의 학자인 성혼의 작품이다. '병'으로 상징되는 세속적 삶과 '청산, 유수, 청풍, 명월' 등으로 드러낸 자연의 모습을 대비하고, 자연 속에서의 근심 없는 삶을 노래하고 있다.
- 주제: 자연과 더불어 근심 없이 사는 모습
- 구성:
 - 초장: 청산과 유수의 속성
 - 중장: 청풍과 명월의 속성
 - 종장: 근심 없는 삶의 지향

☆ (라) 작품 해설: 이현보, <농암가>

- 해제: 조선 중기에 지은 시조로, 관직의 속박에서 벗어나 자연과 어울리는 기쁨을 노래한 작품이다. 작자가 서울에 오래 머물러 있다가 고향에 다시 돌아가서 농암에 올라 산천을 두루 살피니, 그의 옛 자취가 너무나 의연함에 기뻐서 이 노래를 지었다고 한다. 이현보는 이 같은 귀전의 생활 속에서 한국사기문학사상 중요한 의미를 갖는 강호가도의 길을 열었다.
- 주제: 고향에 돌아온 기쁨

16.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암소의 뿔은 수소의 그것보다도 한층 더 검혀하다. 이 이상적인 뿔이 나를 받을 리 없으니 나는 마음 놓고 그 걸 풀밭에 가 누워도 좋다. 나는 누워서 우선 소를 본다. 소는 잠시 반추를 그치고 나를 응시한다. '이 사람의 얼굴이 왜 이리 창백하나. 아마 병인가 보다. 내 생명을 위해 해를 가하려는 거나 아닌지 나는 조심해야 되지.' 이렇게 소는 속으로 나를 심리하였으리라. 그러나 오 분 후에는 소는 다시 반추를 계속 하였다. 소보다도 내가 마음을 놓는다. 소는 식욕의 즐거움조차 냉대할 수 있는 지상 최대의 권태자다. 얼마나 권태에 지질렀길래 이미 위에 들어간 식물을 다시 게워 그 시큼달달한 반소화물의 미각을 역설적으로 향락하는 체해 보임이리요? 소의 체구가 크면 클수록 그의 권태도 크고 슬프다. 나는 소 앞에 누워 내 세균 같이 사소한 고독을 견뎌하면서 나도 사색의 반추는 가능할지 불가능할지 몰래 좀 생각해 본다.

- 이상, 「권태」에서 -

- ① 대상의 행위를 통해 글쓴이의 심리가 투사되고 있다.
- ② 과거의 삶을 회상하며 글쓴이의 처지를 후회하고 있다.
- ③ 공간의 이동을 통해 글쓴이의 무료함을 표현하고 있다.
- ④ 현실에 대한 글쓴이의 불만이 반성적 어조로 표출되고 있다.

☆ 정답: ① - 독해(문학) - 현대 산문 형식 이해

☆ 정답 해설:

소가 반추하는 모습에 대한 글쓴이의 해석과 판단이 드러나고 있으므로 글쓴이의 심리가 투사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투사'는 '어떤 상황이나 자극에 대한 해석, 판단, 표현 따위에 심리 상태나 성격이 반영되는 일'이다.

☆ 오답 해설:

- ② 글쓴이가 과거의 삶을 회상하는 부분을 찾을 수 없으며 글쓴이가 자신의 처지를 후회한 적도 없다.
- ③ 제시된 부분에서 글쓴이의 공간 이동은 드러나지 않는다.
- ④ 제시된 부분에서 현실에 대한 글쓴이의 불만과 반성적 어조는 걸로 드러난 적이 없다.

☆ 작품 해설: 이상, <권태>

- 해제: 이 작품은 작가가 1936년 일제 강점하 답답한 조선의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해 갔던 동경에서 쓴 수필이다. 일본에 가서 느낀 식민지인으로서의 설움과 자신에 대한 무력감은 도회지에서 살았던 자신이 시골 성천에 가서 느꼈던 무기력함과 권태로움을 떠올리게 했을 것이다. 전체 7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농촌 생활과 자연의 권태로움을 독창적이고 참신하게 표현하고 있다.
- 주제: 단조로운 농촌에서 느끼는 극도의 권태